『하늘, 바다, 나무, 별의 이야기』 조관우

第11回静岡韓国語スピーチ大会

暗誦部門\_指定原稿2.歌詞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 뒷산엔

언제나 푸른 꿈이 살고 있었지

개울가 물놀이로 하루 해가 기울어 가고

풀 벌레 노래 속에 꿈이 자라난 곳

너는 하늘을 사랑하니

나는 바다를 사랑해

분명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은 바로 너희들이지

우린 너희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을 뿐

어제는 창에 앉아 하늘을 보며

언제나처럼 내 친구이던 별을 찾았지

그 곳엔 어느 별도 살 수 없어 떠나 버렸어

아무도 살지 않는 나의 하늘이여

너는 나무를 사랑하니

나는 별을 사랑해

분명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은 바로 너희들이지

우린 너희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을 뿐

늦은 것이 아닐까 모두들 포기한듯 해도

내가 널 항상 지켜 줄 거야

누가 너의 맑은 눈과 밝은 미소를 외면하면서

꿈을 더럽힐 수 있겠니

이땅과 하늘의 주인은 바로 너희들이지

우린 너희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을 뿐

두 번 다시 포기하지 않겠어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 앨범 중에서－

　　　　　　　　　　『空、海、木、星の話』　　　チョ・グァンウ

【参考】指定原稿 2. 歌詞和訳(非公式)

子供の頃僕が住んでいた町の裏山には

いつも青い夢が住んでいた

川辺で日が暮れるまで水遊びをして

草、虫、歌の中で夢が育ったところ

君は空を愛しているから

僕は海を愛するよ

間違いなくこの地と空は君たちのもの

僕らはただ君たちの未来を借りて使っているだけ

昨日は窓辺に腰掛けて空を見て

いつものように僕の友達だった星を探した

そこにはどんな星も暮らすことができなくて、いなくなってしまった

誰も住んでいない僕の空よ

君は木を愛しているから

僕は星を愛するよ

間違いなくこの地と空は君たちのもの

僕らはただ君たちの未来を借りて使っているだけ

もう遅いのではとみんなが諦めたとしても

僕がずっと君を守ってあげるよ

誰が君の澄んだ瞳と輝く笑顔を見ないふりして

夢を汚すことができるだろう

間違いなくこの地と空は君たちのもの

僕らはただ君たちの未来を借りて使っているだけ

もう二度と諦めないよ

ー環境へのメッセージを込めた歌のアルバムよりー